

NCKK 국제위원회 성명서

미얀마 "코로나 휴전"과 즉각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국내외 교회, 시민사회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동안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과 긴급한 식량과 의약품 등을 지원해 왔다.

최근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사태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특별히 미얀마는 더욱 파괴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조만간 미얀마 6,000만 인구의 약 50%가 코로나에 감염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경우 나라 전체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자신들의 불의한 권력유지를 위해 코로나 감염사태를 방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를 악용하여 시민불복종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살해, 체포, 구금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27일, 유엔의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앤드류는 '미얀마 군부가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시설을 파괴하여 최소 18명의 의료진을 살해했으며, 600명 이상의 의료진들에 영장을 발부하고, 67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분쟁지역 유엔결의안 2565호에 근거하여 '유엔과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즉각적인 코로나 휴전을 선포하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투명한 백신 보급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다.

군부독재와 유례없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파괴적인 상황에 직면한 미얀마 시민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본회는 한국교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호소를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한국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교회는 미얀마의 코로나 휴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 치료를 위한 긴급한 의약품과 백신보급을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코로나 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의료지원과 백신보급에 즉각 나서야 한다.
3. 미얀마 군사정권은 즉시 "코로나 휴전"을 선포하여 모든 전투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의료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본회는 군사정권의 즉각적인 민정이양이 코로나 퇴치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처방임을 강조하면서 미얀마 군부의 즉각 퇴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자유와 존엄,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미얀마 시민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대할 것이다.

2021년 8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국제위원회
위원장 강용규